

# 말씀의 샘

## 하나님만을 겨냥하는 삶 <창세기 30장 32~43절>

신앙에는 멘토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롤 모델 같은 본보기 말입니다. 야곱의 신앙 멘토는 누가 보더라도 이삭과 리브가 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멘토를 두었다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을 두었음에도 예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 다. 같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같은 영적 분위기와 은혜 속에서도 예서와 같은 성도가 있고, 야곱과 같은 성도도 있게 마련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예서에게서 빼앗고, 예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 결혼하고 14년간 결혼을 위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을 더 일하며 드디어 자기의 기업, 자기가 가질 재산의 몫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기가 삼촌 라반에게서 할당받은 얼룩점박이 양을 늘려가는 방법이 좀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식이 조금은 비과학적이며 미신적 행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흥나무가지를 벗겨서 양들이 물먹는 장소에 꽂아두었고 그 앞에서 새끼를 베면 얼룩점박이 양이 되는 식의 희한한 방식을 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내용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나무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생명과 푸르름을 상징하는 버드나무가지와 하나님의 임재와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살구나무가지를 취했습니다. 또한 사막에서 30m까지 자라기도 하고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신흥나무가지도 취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이 도구들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집중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평범한 나뭇가지에 의미를 부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야곱의 이런 특이한 행동은 그냥 나온 것 일까요? 과연 혼자서 생각해서 나온 행동일까요? 어디선가 배운 것이 표시가 납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며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겨냥하기 위한 몸부림을 누군가에게서 배웠던 것입니다.

### 첫째, 하나님을 겨냥하고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본받고 그들이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체험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1: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34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미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에셀나무, 즉 '타르파'라는 이름의 상록수는 사막에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그 나무는 고사되어 죽어도 그 안에 수분이 있을만큼 생명력이 강합니다. 봄에는 흰색과 핑크색 꽃을 어김없이 피우며 죽지 않는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고 나서 하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강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 연상하고 집중하기 위해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바로 '에셀나무'를 심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이것을 보고 자랐고 그 믿음은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믿음의 유산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후 이삭은 그랄에서 우물을 파고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우물을 파면 목자들에게 뺏기고, 또 우물을 파면 다시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삭에게서 역시 특이한 행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는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았고, 이 신앙은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야곱은 힘들고 어렵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

라보는 법을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그는 버드나무, 신흥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취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도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교회에서 이웃에게서, 또한 여러분의 지체들 중에서 배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라며 이러한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둘째, 하나님만을 겨냥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보려고 믿음의 눈을 뜨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보여주십니다. 기도도 묵상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에게 놀랍게 경험되고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 후 그때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말씀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급한 문제, 큰 일 난 상황,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모세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14: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겨냥하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4: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만을 겨냥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곱도 창세기 30:37~39절까지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야곱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겨냥하며 기대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풍성한 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집중하고 바라봄으로써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6년 9월 18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9. 26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사사기 6장 11~24절

헌 금 특 송 ----- 남자 2명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고백의 변화와 새 역사의 시작"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